



# 어서와! 청자봉은 처음이지?

청소년 봉사단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진정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 작은 것을 소중히 나누는 봉사일 것입니다.

주안애중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자발적인 지역사회활동으로 이뤄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하여 1월 29일(월) - 1월 31일(수) 3일간 청소년자원봉사학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자로서 이번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까 참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참여하는 친구들이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통하여 그냥 봉사가 아니라,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만한 매력적인 봉사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연일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쓸쓸하게 홀로 보내실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웃음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십정2동 경로당과 연계를 하여 2018 겨울방학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1월 29일(월) 첫째 날에는 청소년자원봉사학교에 참여한 청소년 친구들에게 자원봉사자 교육 및 노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해드릴 손 마사지, 매니큐어 칠해드리기, 스마트폰 알려드리기 등의 활동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와 짝을 지어 손 마사지와 매니큐어 칠하는 연습을 해보고, 조별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스마트폰을 알려드릴지 이야기를 나눠보며 정해보았습니다. 또한 '님아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노인과 관련된 영화를 관람을 하면서 아직은 친구들



에게 생소한 노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며 이해해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30일(화) 둘째 날에는 복지관을 출발하여 십정2동 경로당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들이 연로함으로 인해 청소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 31일(수) 마지막 날에는 친구들이 직접 준비한 활동(손 마사지, 매니큐어 칠해드리기, 스마트폰 알려드리기)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손이 고와졌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참여 청소년들도 어르신들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직접 준비해주신 떡국을 맛 있게 먹으며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이번 활동에 대한 느낀 점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번 활동을 통해 노인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직접 준비한 활동을 어르신들에게 해드리니 뿌듯했고 보람찼으며 다음 활동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 친구들과 웃으시며 자원봉사자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십정2동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안애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안애복지관의 상하반기로 진행되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